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 베트남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ODA의 역할을 중심으로 」

농경제사회학부 박사과정 김인애

1. 조사 개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현지조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25년 12월 29일부터 2026년 1월 11일까지 베트남에서 현지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조사는 베트남 농업 부문의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응 ODA가 수행하는 역할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였다.

조사는 베트남 하노이와 안장성(An Giang Province)에서 진행하였다. 하노이를 선택한 이유는 본 연구에 주요 이해관계자인 국제기구 대부분이 하노이에 위치하여 심층 면담 수행에 유리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안장성은 본 연구의 핵심 지역인 메콩 델타(메콩강 삼각주 유역)에 위치하며,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어 다수의 ODA 사업 수혜를 받은 곳이다. 이 지역의 주요 생계 수단인 벼농사에 종사하는 농가의 경험을 파악하는 것이 연구 목적에 직접적으로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조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아울러 연구자가 유사 연구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 가구 설문조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 현지 맥락을 반영한 효율적인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2. 조사 내용 및 결과

하노이에서는 MDRI, ADB, IFAD, GIZ 등 국제기구 및 연구소 관계자와 전문가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베트남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유·무상 ODA 현황, 기관별 전략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이후 안장성으로 이동하여 2개 꼬문(commune)에서 농가 대상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협동조합장, 지방정부 관계자, 안장대학교 기후변화연구소(Climate Change Institute) 담당자와 개별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모든 면담은

통역자 1명을 대동하여 대면으로 진행하였으며, 농가 초점집단면접은 약 2시간, 개별 및 소그룹 면담은 약 1시간 소요되었다.

	
<p>메콩델타 농지 전경</p>	<p>Vong Dong Commune 농가 면담</p>

면담 결과, 베트남 농업 부문 ODA의 형평성과 포용성에 관해 흥미로운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베트남 농업 분야에서 형평성과 포용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취약계층을 포용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많은 자원을 보유한 농가에 지원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신기술 보급 사업의 경우, 이미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교육 수준이 높은 농가가 수혜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지원이 가장 필요한 토지 미보유 농가나 교육 수준이 낮은 농가가 오히려 혜택에서 배제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반면 수혜 농가를 대상으로 한 면담에서는 상이한 인식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동일한 기회 속에서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불평등은 없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사업 설계에서 포용성 확대보다는 기존 수혜자에 대한 사업 효과성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이미 자원을 보유한 집단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불평등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ODA조차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메커니즘을 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기술 수용 과정에서도 주목할 만한 특징이 관찰되었다. 기후변화 대응 ODA를 시행하는 공여기관의 예상보다 농가가 새로운 인프라나 기술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이 크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특히 영농 경력이 긴 중년층 이상에서는 새로운 작물을 시도하거나 기기를 활용한 신기술을 도입하기보다 기존 관행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기후변화 적응은 농업지도

(agricultural extension)와 같은 공식적 교육보다 협동조합이나 마을 내 동료 농가의 성공 사례를 관찰한 후 이를 따라 도입하는 이웃효과(neighbourhood effect)를 통해 확산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ODA 시행 시 개별 농가보다 협동조합이나 마을 단위의 공동체적 접근이 더 높은 사업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현지조사 결과 활용 계획

금번 현지조사를 통해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할만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는 박사논문의 일부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6년 2월 중 면담 내용에 대한 전사를 완료하고 논문으로 작성한 뒤, 상반기 중 논문 심사를 진행하여 2026년 8월에 박사학위 논문으로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박사학위 논문 작성에 현지조사가 필수적임에도 대학원생으로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이번 조사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주신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학문후속세대가 아시아연구소의 현지조사 지원사업을 통해 의미 있는 연구를 수행할 기회를 얻기를 희망한다.